

1

“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대부분의 날들은, 큰 폭의 하락일 직후에 나타났습니다.”

2000년 이후 코스피 일일 하락률 순위

순위	날짜	등락률	이벤트
1	2026-03-04	-12.06%	미-이란 전쟁
2	2001-09-12	-12.02%	9.11 테러
3	2000-04-17	-11.63%	닷컴버블
4	2008-10-24	-10.57%	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
...			
7	2020-03-19	-8.39%	코로나 팬데믹

* 자료 : 한국거래소 삼성자산운용, KOSPI 지수 ※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기간 : 2000년 1월 1일 ~ 2026년 3월 11일

2000년 이후 코스피 일일 상승률 순위

순위	날짜	등락률	이벤트
1	2008-10-30	+11.95%	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
2	2026-03-05	+9.63%	미-이란 전쟁
3	2020-03-24	+8.60%	코로나 팬데믹
...			
7	2020-03-20	+7.44%	코로나 팬데믹

* 자료 : 한국거래소 삼성자산운용, KOSPI 지수 ※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기간 : 2000년 1월 1일 ~ 2026년 3월 11일

증시 급락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. 2026년 2월 28일,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했습니다. 코스피는 3월 3일 -7.24%, 3월 4일 -12.06% 하락하며, 2000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이틀로 기록되었습니다. 하지만, 위 표를 다시 보세요. 리먼 사태(2008년), 코로나 팬데믹(2020년) 등 당시에도 시장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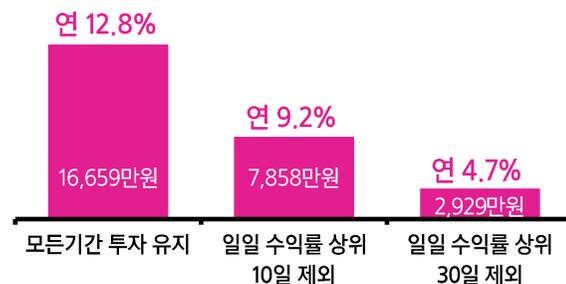
하락률 표와 날짜를 비교해 보세요.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날 이후 큰 폭의 반등을 보인 날이 왔습니다. 3월 4일에도 -12.06% 하락 다음 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반등이 시작 되었습니다. 2008년에도, 2020년에도, 큰 폭의 상승일은 큰 폭의 하락일 이후 찾아왔습니다.

공포에 팔고 나간 투자자는, 이 반등의 순간에 시장 밖에 있었습니다.

2

“위기 때 매매를 반복하기보다 오래 머무르세요”

Kodex 200 ETF 투자 결과(코스피 200지수 추종)
상장일에 1,000만원 투자 시 연평균 수익률 및 누적 평가액
*기간 : 최초 상장일(2002년 10월 10일)부터 2026년 3월 11일까지



* 자료 기준 및 유의사항 : Kodex 200 ETF 수정기준가, 세 전 기준 수익률
*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
2002년, Kodex 200 ETF 상장일에 1,000만원을 투자한 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, 그리고 위기 때마다 빠져나가며 수익률이 좋았던 날 10일, 30일을 놓친 사람.

그 수익률 차이는 우리의 상상보다 컸습니다. 위기 때 마다 투자를 멈추게 된다면, 이어지는 반등을 놓치게 됩니다. 매매를 반복하기보다, 시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장기투자에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.

추천 PICK!

한국 증시의 구조적 성장에 참여하는

Kodex 200 ETF

(069500)

기간 수익률(세전)	1개월	6개월	1년	3년	상장이후
ETF	-10.6%	76.9%	153.6%	173.6%	1,565.9%
기초지수(BM)	-10.6%	75.9%	150.9%	159.0%	1,037.1%

* 기준일 2026년 3월 12일,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기준일 순자산(NAV) : 17조 6,035억원

* 합성총보수 : 연 0.1615% (운용 0.124%, AP 0.001%, 신탁 0.010%, 사무 0.015%, 기타비용 0.0115%)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.0283% 발생, 위험등급: 2등급 (높은 위험)

* 합성총보수 · 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 및 ETF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, 커버드콜 전략으로 현금흐름 추구

- **급등락을 거듭하는 코스피 지수**: 2월 28일 미국-이란 전쟁으로 코스피 지수 급등락을 반복하며 **코스피 변동성지수(VKOSPI)가 장중 79.3까지 돌파*** 직전 2개월간 VKOSPI 평균치 39.2 상회

*2026년 3월 4일 장중 고점 기준, 한국거래소



*자료: 조선일보(2026.03.11)

- **변동성이 커질수록 옵션 프리미엄은 상승하는 경향**: 커버드콜 전략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여 프리미엄 수익을 얻는 구조로, **기초지수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옵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급등락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**

- **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*로 절세 효과 추구**:

ETF 분배금 내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 해당

* 주식 배당 부분은 과세되며, 과세 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FOCUS ①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(498400)

- 코스피200 지수의 상승에 참여하며, 위클리 코스피200 콜옵션 매도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월배당을 통해 꾸준한 현금흐름을 추구
- 국내 주식 매매차익과 국내 코스피 200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로 절세 효과 추구

* 합성총보수 : 연 0.4228% (운용 0.359%, AP 0.001%, 신탁 0.020%, 사무 0.01%, 기타비용 0.0328%)

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.1015% 발생, 위험등급: 1등급 (매우높은 위험)

* 기준일 2026년 3월 12일

*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음

* 커버드콜 ETF는 '비대칭적 손익구조' 이므로, 기초자산 상승 시 수익 상방이 제한되고, 기초자산 하락 시 손실 하방 제한이 없어 원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

* 합성총보수 · 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 및 ETF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*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New Space 시대, 민간주도 미국 우주항공 시대의 시작

- **상업 매출이 본격화되는 우주산업**: 미국 민간 기업의 주도로 우주산업의 상업화가 본격화 되며 통신, 안보, 데이터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. 현재 성장세 지속될 경우, **2040년 전체 글로벌 우주경제 시장 규모는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**

*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(2026.01.15)

- **우주항공산업 진입장벽 완화**: 기존 우주항공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 개발이 요구되었으나, **美 Space X* 등장**과 함께 재사용 발사체와 소형, 저궤도 위성기술 발전으로 **진입장벽 완화**되어 다양한 민간 및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가능

* 해당 기업은 지수 내 포함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으로 상장 후 지수 내 편입 예정이며,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- **미국 정부의 지원 정책**: NASA '아르테미스', 미 행정부의 '골든 돔' 프로젝트 등 **정부 주도 프로젝트와 맞물려 미국의 우주항공산업의 장기 성장** 기대



FOCUS ② Kodex 미국우주항공 ETF(0167Z0)

신규 상장(3월 17일)

- 미국 로켓발사체, 위성, 첨단소재 등 미국 우주항공 산업 핵심 종목에 빈틈없이 투자
- 트럼프 정책 수혜 기대로 Space X* 등 미국 우주항공 관련 신규 기업 상장 기대되며,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특별 편입을 통해 미국 우주항공 산업 성장 모멘텀 확보 추구

* 해당 기업은 지수 내 포함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으로 상장 후 지수 내 편입 예정이며,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* 총보수 : 연 0.550% (운용 0.509%, AP 0.001%, 신탁 0.030%, 사무 0.010%, 위험등급: 2등급 (높은 위험))

* 향후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* 기준일 2026년 3월 12일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,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,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,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,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,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,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, 보수,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.
-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되며,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해당 자료는 특정종목을 추천하는 자료가 아닙니다.

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